

파업 투표 앞둔 기아차 노조 파열음

생산직반장모임 “제2전성기… 내실있는 임단협해야”

노동자연대 “타임오프제 대리전 불과 투쟁 중단을”

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기아자동차 노조 내부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기아자동차와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소하리·화성공장 생산직 반장 모임인 생산자관리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노사가 본격적인 협상도 하기 전에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우리 앞날이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스포티지R과 K7·K5 신

차효과를 앞세워 동종사를 제치고 내 수 판매 1위를 질주 중”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살려 관행적 파업보다는 내 실있는 임단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노조 지도부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특히 이들은 노조원인데다 생산직 반장들로 현장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노조 지도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중도실리를 표방하는 기아노동자연대도 최근 소식지에서 “타임오프제를 명분으로 3만4000명을 앞세운 급속노조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노조는 대리전에 불과한 투쟁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또 최근 실명을 공개하며 유인물을 돌린 한 조합원은 “노조를 무한 신뢰하지만 노조는 조합원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며 “명분없는 투쟁보다 협상테이블에서 사측을 압박해 사

상 최대 실적에 대한 성과물을 쟁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발은 실리추구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다분히 정치 투쟁인데다 파업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불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걱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조 지도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도부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올해 단체교섭이 마치 전임자 문제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전임자 문제에 발목 잡혀 조합원들의 요구안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사상생만이 해법이다

5 이제 파업관행 끊어야

‘정치 파업’땐 지역민도 등돌린다 경제 살리기 성숙한 노사문화를

“지역경제 중추 기아차노조 책임감 갖길”

타임오프(發) 파업 전문이 기아차에 짚게 드리워지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24~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강행하는 등 사설상 파업 수순에 돌입하면서 노사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기아차 임단협은 생존권 투쟁이 아닌 타임오프 시행을 놓고 정·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으로 변해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다.

파업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기아차 노사는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여전히 현행 전임자 수보장, 상급단체 임원 곤경 전임 인정, 노조 자체 고용한 상근자급여 지급 등 개정 노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내놓았고, 사측은 노조 전임자들에게 다

음달 1일자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타임오프로 맞서면서 임단협 상견례조차 못한 노사가 일주일만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결국 파업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에 헛되게 된다. 연예 행사가 되어버린 파업에 지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낼 것이다. 스포티지R과 K5·K7의 신차 돌풍으로 형님격인 현대차를 따라잡는 등 최근 호조세에 친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에 헛되게 된다. 연예 행사가 되어버린 파업에 지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낼 것이다. 스포티지R과 K5·K7의 신차 돌풍으로 형님격인 현대차를 따라잡는 등 최근 호조세에 친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에 헛되게 된다. 연예 행사가 되어버린 파업에 지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낼 것이다. 스포티지R과 K5·K7의 신차 돌풍으로 형님격인 현대차를 따라잡는 등 최근 호조세에 친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이 때문에 원로 노조원들이 생산 현장의 반장들도 노조 집행부의 강경일변도 투쟁을 비판하고 있다. 생산자관리협의회 관계자는 “스포티지R과 K5·K7 등 신차 돌풍으로 전성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출혈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의 이번 파업은 명분과 실리, 모든 면에서 백에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파업을 벌이게 되면 그 자체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돼 처벌이 뒤따라게 되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에 헛되게 된다. 연예 행사가 되어버린 파업에 지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낼 것이다. 스포티지R과 K5·K7의 신차 돌풍으로 형님격인 현대차를 따라잡는 등 최근 호조세에 친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에 헛되게 된다. 연예 행사가 되어버린 파업에 지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낼 것이다. 스포티지R과 K5·K7의 신차 돌풍으로 형님격인 현대차를 따라잡는 등 최근 호조세에 친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파업에 휘말리게 되면 가뜩이나 빈사상태에서 허덕이는 지역경제는 침체타가 될 전망이다. 지역민들은 기아차가 정치 파업에 나서기보다는 지역경제를 살피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관행처럼 굴려온 현재의 노사관계로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고질적인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노사관계로 거듭나야 할 때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공장의 50만대 생산체계 재편을 앞두고 20년 연례 파업은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에 침체타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혁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파업에 휘말리게 되면 가뜩이나 빈사상태에서 허덕이는 지역경제는 침체타가 될 전망이다. 지역민들은 기아차가 정치 파업에 나서기보다는 지역경제를 살피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에 헛되게 된다. 연예 행사가 되어버린 파업에 지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낼 것이다. 스포티지R과 K5·K7의 신차 돌풍으로 형님격인 현대차를 따라잡는 등 최근 호조세에 친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에 헛되게 된다. 연예 행사가 되어버린 파업에 지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낼 것이다. 스포티지R과 K5·K7의 신차 돌풍으로 형님격인 현대차를 따라잡는 등 최근 호조세에 친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화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금당 공인중개사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감정가 이하

- 범위건물, 상무지구 중심지, 대지 1010m²(305평) 건폐 2996m²(906평) 공시지가 27억 3천 평도 41평
- 동구 6자선도로와 3자선 도로 코너 대지 1948m²(589평) 건폐 2109m²(637평) 공시지가 27억 3천 평도 525평
- 신안동 상업지 310m²(94평) 공시지가 3억 7천 평도 2억 4천 평도 574평 자연녹지, 대지 574m²(169평) 공시지가 5억 평도 5천 3천 평도 169평
- 대지, 두암동 소방도로점 275m²(83평) 1억 5평
- 종점로가 15층 건물 대지 33건평 166 공시지가 3억 평도 6억
- 묘양시설재활 학원점 대지 1139m²(337평) 건물 1442평 경매감정가 18억 평도 6억
- 금남로 창업금고 위 주택 영업용 적합 공시가 배도 8400만원
- 복도 6자선 도로 대지 55 건평 206평 6층 건물 5억
- 회동점 8자선 도로 대지 135건평 173 대출 3억 평도 6억 5천
- 목포 대지 413평 3층건물 공시지가 5억 2천 평도 8억 2천
- 금남로가 대지 100 건평 311 공시지가 6억 5천 평도 7억 6천
- 종점로가 대지 63평 건평 229평 공시지가 10억 2천 대출 10억 3층과 4층은 공실이고, 전 세 88평 건물 960 평도 16억 5천
- 금남로가 대로변 대지 62평 건평 919평 공시지가 12억 5천 4층과 5층은 공실이고, 전 세 1억 8천 평도 600만원 평도 16억

교통

- 4층 상가주택 신안동 4차선 도로변 대지 184m²(56평) 건폐 461m²(136평) 대출 1억 평도 2억 5천
- 전원주택지 송산유원지 부근 196평 사찰도 적합 8800만원
- 나대지 80평 사거리 월곡동 주공 아파트 입구 준주거지 472m²(143평) 공시가 4억 8천 평도 5억 5천
- 하남지구 대지 62평과 임곡동 준주거지 265평을 합하여 건물과 교통기능 5억 8천
- 광산구 우산동 삼입지역 187평 공시가 5억 7천 평도 6억 2천
- 송림리 소촌동 지구단위지역 2종주거지 403평 4억
- 묘양시설, 병원, 사옥 적합 유통4거리 대지 240평 건폐 818평 대출 18억 공시지가 14억 평도 24억 5천
- 대지 260평 쌍촌동 대우아파트입구 광장 203만원
- 북구 충효동 대지 147평 전원주택 적합 7900만원
- 담양을 무인보증기지 지역 1527평 분화기능 11억 5천
- 생활권 서구 녹동동 1602평 공시지가 903천 평도 9억 7천만원
- 자연녹지 706평 매월동 서광주역 부근 평도 9억 9천만원

현대 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www.85858849.co.kr

토지 매매

- ▶ 광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매매

- 271m²(83평) 매매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매물통 공인중개사

- 2780m²(841평) 매도가 22억원

광산 간 도로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m²(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 대로변 63평(528평) 매도가 1억 8천만원 가능

마포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5호선 신길역 뒷편 도로변, 생신동 860m²(260평) 매매가 7억 5천만원

마포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5호선 신길역 뒷편 도로변, 생신동 860m²(260평) 매매가 7억 5천만원

벽진동 창고, 공장부지

- 벽진동 697m²(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매가 2억 4천만원

광산구 1동 일반주거지역 매매

- 신수동 1744m²(528평) 매도가 1억 8천만원

박동 645m²(195평), 649m²(196평) 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나주 남 평 토지 매매

- 풍림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점, 짐동지 2951m²(893평)

- 공장, 창고 등 용도 다양 매도가 2억 9천만원

건물 매매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 매매

- 생활동 대지 278.5m²(84.2평)/건평 662m²(200평)

- 1층상가 대지 104m²(31평)/건평 123.3m²(37.3평)

-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2~3층, 목록등(직영)

-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 9천만원 월 340만원

공장 창고 건물 매매

- 생활동 대지 367m²(